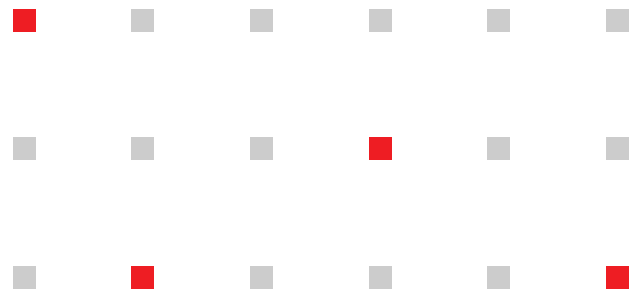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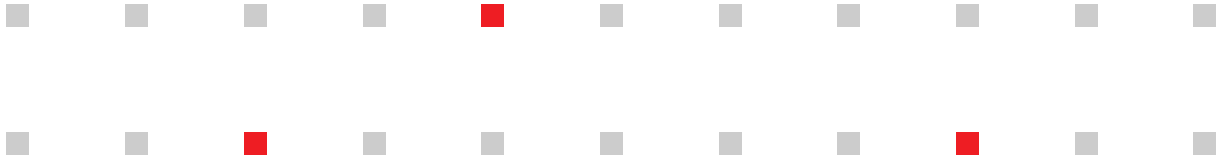


지역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지역통계연보의 개편방안
전북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연구진 이 강 진 연구위원 kjl@jd.re.kr
 연구진 김 이 수 부연구위원 kimbio96@nate.com

- 제1장 | 서론 : 지역통계수요에 부합하는 지역통계연보 필요
- 제2장 | 전라북도 지역통계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제3장 | 전북통계연보를 통해 살펴 본 지역통계연보의 문제점 분석
- 제4장 | 지역통계연보(전북통계연보)의 개편방안



지역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지역통계연보의 개편방안 전북통계연보를 중심으로

Contents

제1장 서론 : 지역통계수요에 부합하는 지역통계연보 필요	3
제2장 전라북도 지역통계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4
1. 전라북도 지역통계관리의 현황	4
2. 전라북도 지역통계관리의 문제점	5
제3장 전북통계연보를 통해 살펴 본 지역통계연보의 문제점 분석	7
1. 지역통계연보의 작성과정	7
2. 전북통계연보의 구성 및 내용 분석	9
3. 전북통계연보의 문제점 분석	11
제4장 지역통계연보(전북통계연보)의 개편방안	14
1. 지방자치단체 통계관리의 제도적 자율성 제고	14
2. 지역통계관리의 지휘본부(control tower) 기능을 수행할 지역통계위원회의 운영	14
3. 지역특성 및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통계콘텐츠 개발	15
4. 보고통계의 승인통계화를 통한 지역통계관리의 효율성 제고	15
5. 지역통계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고객맞춤형 구성	1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Issue Briefing



제 1 장

서론 : 지역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통계연보 필요

지역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역통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지역통계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지역통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지역통계연보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전북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지역통계연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통계연보의 개편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통계관리의 제도적 자율성 제고, 지역통계관리의 지휘본부(control tower) 기능을 수행할 지역통계위원회의 운영, 지역특성 및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통계콘텐츠 개발, 보고통계의 승인통계화를 통한 지역통계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역통계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고객맞춤형 구성 등의 5가지를 제시하였음.

●●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인한 지역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요 증가

-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지역발전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확한 지역통계가 필수적임.
- 지방자치제의 진전에 따라 지역주민의 알권리가 확대되면서 지역의 현황이나 미래비전, 지방정책 관련 지역통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지역통계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필요한 통계는 공급이 부족한 실정

-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청의 노력으로 지역통계가 많이 증가했지만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보건·복지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소요되는 경제통계 등 최근의 경제·사회현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지역정책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정책결정의 기초정보가 되는 지역통계가 부족하여 정책의 수립·집행,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구자는 통계부족으로 현실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우며, 기업은 기업전략을 수립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임. 이에 따라, 지역통계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쓸만한', '필요한' 통계가 없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서 지역정책담당자, 연구자, 기업, 전북도민들이 쉽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통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통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통계연보의 개편 필요성 제기
 - 전라북도 지역통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북 통계연보라고 할 수 있음. 전북통계연보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전북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
 - 하지만 이 전북통계연보도 지역통계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한계가 많으며 활용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통계청의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 등과 같은 통계정책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지역통계연보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역통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전북통계연보의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여기서는 전북통계연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음.

제 2 장

전라북도 지역통계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전라북도 지역통계관리의 현황

- 전라북도 승인통계 작성현황
 -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 전라북도에서 통계작성기관으로 되어있는 곳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등이 지역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기본통계, 전라북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전라북도 경기종합지수, 전라북도 시군별 GRDP, 전라북도 사회통계등을 작성하고 있음
-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군산시 경제활동인구조사, 군산시 사회조사, 군산시 서비스업 동향조사등 군산시에서 지역통계 작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김제시의 경우에도 김제시 농업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전주시의 통계작성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전주시사회조사만 작성이 되고 있으며 전주시 경제활동인구조사(중지), 전주시 광공업동태조사(중지), 전주시 도소매업동태 조사(중지)등은 지속적인 작성이 되지 않음.

〈표 1〉 전라북도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항목

기 관	통계명칭	조사내용
전라북도	전라북도경기종합지수	전북지역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는 전력소비량, 비농업취업자수, 수입액,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어음교환액, 생산자출하지수, 수출액
	전라북도기본통계	토지 및 기후 등 307개 항목
	전라북도사업체조사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창설년월, 사업내용,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전라북도사회조사	인구, 소득, 소비, 고용, 노사, 교육, 보건, 체육, 환경, 교통, 사회, 복지, 문화여가, 정보화, 사회참여 부문
	전라북도서비스업동향조사 (작성취소)	사업체 기본현황, 주요 취급상품명, 영업일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전라북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지역내총생산액(증가율, 구성비, 디플레이터 등) - 산업구조,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요소소득 등
	주민등록인구통계	세대수 및 성별, 연령별 인구수(외국인포함)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통계	학생수, 졸업자수, 취업자현황, 교원수, 시설현황 학생체력 및 체력조사(키, 몸무게, 앉은키 등)

●● 전라북도 통계관리조직

- 전라북도의 도·시·군의 통계조직은 일반적으로 과장과 계장 그리고 담당직원으로 구성되어 되나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시·군이 전주 시 이외에는 없음.
- 도에는 통계 전문직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이나 시군의 경우에는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이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심지어는 1인이 통계와 타 업무를 겸하는 사례도 있어 그 지역의 통계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작성되고 공표되는 통계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공급자 위주의 관점에서 작성 공표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통계가 작성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일정 주기별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통계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통하여 활용성이 떨어지는 통계와 신규 작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통계를 발굴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통계는 많은 부분이 보고통계·행정통계로 이루어져 있음. 현재 작성되고 공표되는 통계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현상을 파악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전라북도 지역통계관리의 문제점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통계의 절대 부족

●● 통계 조직과 인력의 부족

-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조직 및 인력이 매우 취약하여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갖춘 시군이 없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통계직원은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우며 통계직 자체가 한직으로 인식되어 일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됨.

- 지자체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중앙정부에 의해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지역통계작성에 대한 업무를 통계청 소관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근 그 인식이 나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통계작성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중앙부처의 지역통계 작성을 기대하고 있음.

●● 지역통계의 활용이 저조함

- 대규모 통계조사나 행정자료에서 지역별 통계작성이 가능하지만 공표하지 않거나 간행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역통계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역의 행정통계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 이유

로 인해 사장되는 통계자료가 많이 있으며 행정통계 중 많은 부분이 담당자 및 소속기관의 참고자료로만 이용되고 있음. 각 기관에서 수집 또는 가공된 통계자료가 일회성으로만 이용되고 있음.

●● 지역통계연보의 역할 수행의 한계

- 지역통계연보는 지역통계의 바이블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의 모든 통계에 대한 가장 근본이 되는 통계로서 역할이 있으나 지역의 통계를 단순히 기존 방법에 의해 모아놓는 역할만 할 뿐 지역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실질적으로 지역통계연보를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나 통계의 정확성, 시계열의 일치등과 같은 통계의 기본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지역경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찾지 않는 통계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제 3 장

전북통계연보를 통해 살펴 본 지역통계연보의 문제점 분석

1. 지역통계연보의 작성과정

- 통계청의 지역통계연보 표준화 근거와 추진 방향

- 전북통계연보를 비롯해 지역통계연보는 ‘통계법 제4장 제18조’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있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통계청의 지역통계연보 표준화 추진방향

-통계청은 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비교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표의 작성기준, 구성항목, 수록범위 등을 표준화서식에 따라 최대한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음.

-공통통계표는 모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록하고, 특성통계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성이 가능한 시·도 및 시·군·구에서만 수록.

- 통계청의 지역통계연보 표준화 과정은 <그림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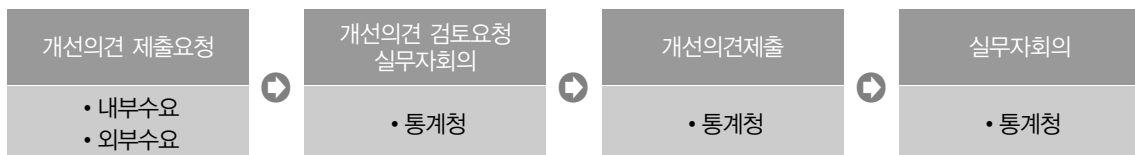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유관기관에 지역통계연보 관련 개선의견에 대한 제출요청

-지역통계연보 관련 개선의견 검토요청사항에 관한 실무자회의(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관련 개선의견 제출(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관련 개선의견 제출내용에 대한 실무자회의(통계청)

<그림 1> 통계청의 지역통계연보 표준화과정



● ● 지역통계연보의 신규통계내용 개발과정

(통계청 예규 제46호 「신규통계 개발절차에 관한 지침」)

-외부검토 : 전문가회의, 국가통계위원회

-작성심의 : 공식통계

• [통계수요파악]

-내부수요 : 청내 소관국(과)의 자체 필요성 검토 결과

-외부수요 : 통계수요조사, 타기관(청와대, 재정부 등)의 조사요구

• [개발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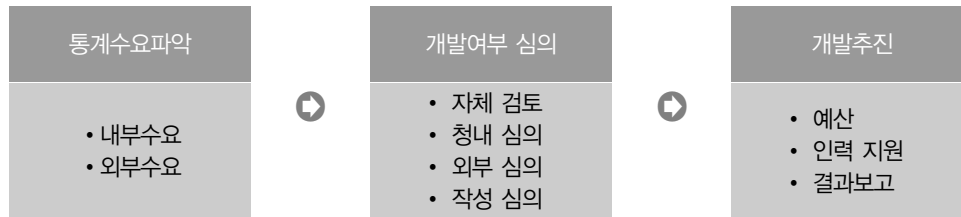
-신규통계 개발이 결정된 경우, 인력, 예산,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하여 담당 과 또는 지방청에 협조요청

-소관국(과)은 개발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통계개발 완료 후 6개월내에 작성 보고

• [개발여부심의]

-사전검토 : 자료수집, 청내회의, 시험조사, 청내심의 (심의회 개최)

〈그림 2〉 지역통계연보의 신규통계내용 개발과정





2. 전북통계연보의 구성 및 내용분석

- 통계청의 「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원칙에 근거
- 전북통계연보의 목차 및 내용은 통계청의 「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원

칙에 의해 설정되고 있음.

- 2009년 현재 지역통계연보에 작성 가능한 지역통계수는 18부문 363개이나 전북통계연보(2009)에 작성된 지역통계수는 18부문 278개임.

〈표 2〉 지역통계연보의 작성가능통계수와 전북통계연보의 작성통계수 비교

부 문	작성가능 지역통계수(A)		전북통계연보(2009) 작성통계수(B)		비고 (B-A)
	계	구성비	계	구성비	
	363	100.0%	278	100.0%	
토지 및 기후	7	1.9%	7	2.5%	0
인구	18	4.9%	15	5.4%	-3
노동	10	2.7%	7	2.5%	-3
사업체	3	0.8%	3	1.1%	0
농림수산업	59	16.2%	39	14.0%	-20
광업·제조업 및 에너지	10	2.7%	9	3.2%	-1
전기·가스·수도	15	4.1%	11	3.9%	-4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 서비스	11	3.0%	8	2.9%	-3
주택·건설	22	6.0%	15	5.4%	-7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39	10.7%	13	4.7%	-26
보건 및 사회보장	45	12.4%	41	14.7%	-4
환경	11	3.0%	8	2.9%	-3
교육 및 문화	28	7.7%	22	7.9%	-6
재정	15	4.1%	13	4.7%	-2
소득 및 지출	5	1.4%	5	1.8%	0
공공행정 및 사법	31	8.5%	28	10.1%	-3
전국통계	21	5.8%	21	7.5%	0
국제통계	13	3.6%	13	4.7%	0

●● 전북통계연보의 내용분석

-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적은 통계조사 항목의 수
-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서식(2010)에

의하면, 전북통계연보는 몇 개 부문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통계조사항목의 수가 적음.

-전북통계연보(2009)는 지역통계연보 작성시 가능한 지역통계수의 76.6%만 활용.

〈표 3〉 주요 부문별 지역통계연보의 작성가능통계와 전북통계연보의 작성 통계수 비교

부 문	작성가능 지역통계수(A)		전북통계연보(2009) 작성통계수(B)		비고 (B-A)
	계	구성비	계	구성비	
		363	100.0%	278	
농림수산업	59	16.2%	39	14.0%	-20
주택·건설	22	6.0%	15	5.4%	-7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39	10.7%	13	4.7%	-26
교육 및 문화	28	7.7%	22	7.9%	-6

• 기초분야 혹은 지역의 단기적 변화분석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2009년 현재 지역통계연보에 작성 가능한 지역통계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초분야 또는 지역의 변화와 관련되는 분야인 농림수산업부문이 59종(16.2%),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이 45종(12.4%), 교통, 관광 및 정보통신부문이 39종(10.7%), 공공행정 및 사법부문이 31종(8.5%), 교육·문화부문이 28종(7.7%)으로 나타남.

-전북통계연보(2009)에 활용된 통계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초분야 또는 지역의 변화와 관련되는 분야인 농림수산업부문이 39종(14.0%),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이 41종(14.7%), 공공행정 및 사법부문이 28종(10.1%), 교육·문화부문이 22종(7.9%), 교통, 관광 및 정보통신부문이 13종(4.7%)으로 나타남.

• 지역전략산업이나 지역혁신자원과 관련된 통계의 비중이 약함

-2009년 현재 지역통계연보에 작성 가능한 지역통계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전략산업이나 지역혁신자원과 관련되는 분야인 광업·제조업·에너지부문이 10종(2.7%), 노동부문이 10종(2.7%), 사업체 부문이 3종(0.8%)임.

-한편, 전북통계연보(2009)에 수록된 통계 중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이나 지역혁신자원과 관련되는 분야인 광업·제조업·에너지부문이 9종(3.2%), 노동부문이 7종(2.5%), 사업체 부문이 3종(1.1%)에 불과함.

• 새로운 정책수요 영역에 대한 통계의 부족

-2009년 현재 지역통계연보에 작성 가능한 지역통계영역이나 전북통계연보(2009)에 활용된 통계영역 모두 저탄소녹색성장,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정책수요 부문의 통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세부 통계자료의 부족

-전북통계연보를 비롯해 지역통계연보는 통계 중 인구 및 농림, 수산 부문의 통계는 비교적 지역단위의 통계가 잘 개발되어 있으나, 경기동향, 산업연관표, 관광, 자금순환, 투자 등에 관한 지역경제부문과 환경,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의 질에 관한 통계는 주로 총량적으로 파악되어 있어 지역수준의 통계정보 획득이 제한됨.

-예를 들면, 각종 시설(백화점, 식품점객업소, 체육시설, 문화공간,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통계는 단순한 개수 자료만 있고, 이용실적이나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없음. 이외에도 관광, 문화, 산업연관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



태, 자금순환, 대중교통수단 이용률, 빈곤인구, 기업체 생멸 통계 등은 전국단위로만 이용 가능하고, 지역통계는 없는 실정임.

3. 전북통계연보의 문제점 분석

- 통계청 ‘시·도,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으로 인한 통계개발의 제약
 - 통계청의 ‘시·도,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통계연보의 목차와 구성의 통일성 등 통계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특화적 행정통계의 개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현재처럼 통계청의 ‘시·도,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에 의해 전북통계연보를 작성할 경우 이는 명목상 지역통계연보에 불과할 뿐임. 즉 전북통계연보는 전라북도의 지방특성을 반영한 지역통계연보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설정한 목차와 구성으로 인해 지역수요에 부응한 통계가 개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통계청은 조사기획 단계부터 결과공표단계까지 통계작성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결과 집계 및 분석, 결과공표 뿐 아니라 조사원의 현장조사기법, 업무담당자의 통계이론 교육 등을 지원할 것이라 하였으나 이는 지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지역통
- 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역통계의 활성화 방안이 되기는 어려움.
- 현재처럼 ‘시·도,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에 의해 통일성을 기한다는 목적에 치중하여 지역통계연보를 작성할 경우 그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기 보다는 통계청의 지방사무소가 작성주체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통계연보의 구성도 현재처럼 각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지역통계연보(전북통계연보 등)로 명명하기보다는 책 한권에 각 지역통계연보들을 합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임. 예를 들어, ‘대한민국 지역통계연보’로 명명하고 목차와 구성을 각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통계 항목수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지역 정책수립 활용도
 - 현재 전북통계연보에 수록된 지역통계항목수가 부족하여 지역현상을 파악·분석하여 지역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한계를 노출. 이는 통계청의 「통계표준화 원칙」에 의해 대부분의 조사통계항목이 전국단위로 설계되어 지역단위의 통계로 활용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현재 전라북도는 지역통계를 개발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전북통계연보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북통계연보의 경우 각 지역에서 발간된 지역통계연보에 나타난

것과 항목구분이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 대체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지역통계에서 볼 수 있는 경제활동에 의한 고용, 임금, 실업, 생산성, 재고율, 지역총생산, 소득분배, 지출 등의 내용은 없고 주로 생산 위주로 단편적인 통계작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소득을 나타내는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통계인 가계조사, 범죄 발생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 사망원인통계, 국민건강 및 영양조사, 환자조사 등이 전국단위로 작성되어 지역의 현황을 반영하는 통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외에도 시군구 GRDP,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 등 소비 및 투자관련 지역별 경제지표가 거의 없어 지역내 경제수준, 소비 및 투자동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역전략산업을 반영한 통계개발의 부족

-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부품·소재, 자동차, 환경, 관광, 벤처, 지식기반 산업 등 각종 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업별 통계는 산업분류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제공하는 지역 기업들도 지원시책과 규제에 따라 업종 통계자료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음(최봉호, 2009).
- 현재 전북통계연보에는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 등 산업클러스터의 형성 및 발

전등에 대한 통계가 부재함. 즉 소지역 단위 통계가 양적으로 부족하여 자치단체차원에서 지역의 환경변화나 지역실정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전계획이나 정책수단의 개발에 많은 한계를 드러냄

- 전북통계연보에는 전북전략산업과 관련한 행정통계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방대한 행정자료들이 통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통계청과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통계청 : 지역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전국단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행태

-지방자치단체 : 통계청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계지표들을 반영하려는 노력 부족

- 지역전략산업, 지역개발·계획관련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계열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최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계획단계별 장래예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시계열자료의 수집이 불가피함. 그러나 전북통계연보에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자료부족, 특히 시계열적 자료의 미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전략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의 설정의 설정과 예측이 어려운 현실임.

-시계열자료의 부족은 계량적 분석방법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역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토개발계획과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군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새로운 정책수요에 기반한 통계의 질적 내용 부족

- 새로운 정책수요에 기반한 통계구성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계이용자와 작성기관간의 수요발굴-반영 메커니즘의 부족으로 “통계는 많은데 필요한 통계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김.
- 현재 저탄소녹색성장, 다문화가정 등 급속한 경제·산업, 문화분야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 통계연보에 담겨있는 분야들은 요즈음 나타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함.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통계의 부족

-기후변화 인식지수,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녹색생활지표 등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의 개선·개발

• 취약계층 관련 통계의 부족

-노인 일자리에 관한 통계,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욕구 실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등 개발,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취약계층 분석

• 다문화 가족에 대한 통계부족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정 인구동태, 결혼 이민자 실태, 인구센서스에서 다문화 가족 관련 현황조사 등

제 4 장

지역통계연보(전북통계연보)의 개편방안

1. 지방자치단체 통계관리의 제도적 자율성 제고

- 통계청의 ‘시·도,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작성권한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즉 통계청의 ‘시·도,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의 준수와 지역특화적 행정통계를 반영한 전북통계연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의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
- 전북통계연보를 비롯해 지역통계연보를 작성할 경우, ‘목차’와 ‘구성’은 통계청의 ‘시·도,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을 준수하되, ‘구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항목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
- 통계연보를 작성하는 시·구와 이를 감독하는 도에서는 통계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구청 각 실과에서 상급기관의 부서로 보고하는 자료와 통계연보작성을 위해 시·구청 통계담당부서로 제출하는 자료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항목별 세목 자료치 합산의 정확성

을 확인하며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계수요자들이 검증을 하는 것으로 연구원 내에 통계오류신고센터(가칭)를 운영하여 통계연보 등 각종 도/시군 통계의 오류를 파악하여 도 통계담당계와 통계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나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타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통계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2. 지역통계관리의 지휘본부 기능을 수행할 지역통계위원회의 운영

-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작성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통계작성 및 활용, 지역통계의 생산과 공급체계의 평가를 통한 전북통계연보발전계획(안)의 수립,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비롯해 지역통계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
- 지역통계에 대한 관심이 많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도 국가차원의 통계위원회 처럼 지역통계관리의 지휘본부(control tower) 기능을 수행할 지역차원의 지역통계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의 통계관련 업무에 대한 지역차원의 정책개발과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함.

비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와 3차 산업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해야 함. 예를 들어 서비스업 활동지수, 농가 및 어가의 소득통계, 부동산 통계, 친환경 인증에 관한 통계, 지가 통계, 시/도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 등은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

3. 지역적 특성 및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통계콘텐츠 개발

- 지역통계연보에 각 부분별로 표준항목과 특성항목을 구분하여 수록하도록 하여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연보로 활용. 즉 통계연보의 개편에 대한 통계청과 지자체의 전문가들이 전면적인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에서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통계의 수요파악을 통해 통계연보 수록 목록 파악.
- 정책수립이나 경제·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에 대한 지역통계 개발이 필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 등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부품·소재, 자동차, 환경, 관광, 벤처, 지식기반 산업 등 각종 전략산업에 필요한 미시통계, 전략산업(IT, 생물, 문화, 지식, 스포츠, 녹색성장산업)이나 부동산, 재래시장 동태통계, 산업의 각 부문별 생산/분배/지출, 종사자수, 수출입 등에 대한 종합적 자료 등의 개발 필요.
- 특히 생산위주의 통계가 중점적으로 발표가 되고 소비를 반영하는 통계가 미비하므로 소

- 새로운 지역통계의 개발은 기존의 보고통계 중심의 정태적 통계생산에서 지역사회발전계획과 관련된 각종 통계지표를 확대 개발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통계의 개발 등 지역사회의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동태적 지역통계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저탄소녹색성장, 다문화가정의 증가, 스마트폰 활용인구, 향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역통계의 개발과 기존 지역통계의 재정비를 추진해야 함.

4. 보고통계의 승인통계화를 통한 지역통계관리의 효율성 제고

- 지역통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조사통계는 비용적인 문제가 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통계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통계 보다는 보고통계를 활용하여 통계연보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현재 작성되고 있는 다양한 통계 가운데 통계연보에 수록되지 않고 있는 의미있는 현안통계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계연보에 수록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를 승

인통계화 하여 통계연보에 수록하는 것임.¹⁾

- 전라북도에서는 도의 통계부서와 전략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필요한 지역 통계 종류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함.
- 지역통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통계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인식전환으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 필요.

5. 지역통계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고객맞춤형 구성

- 현재 작성되고 있는 통계연보의 재구성을 통하여 활용도가 높은 통계를 전면에 배치하는 형태의 개편을 통해 일관성 유지하되 통계연보 개편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큰 분야를 전면에 배치하고 통계수요자의 접근성, 활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
- 현행 지역통계연보의 경우, 구성이 행정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제통계, 부록 형태로 되어 있으나 도정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안통계를 전면에 배치하여 전북통계연보를 찾는 수요자로 하여금

생생한 통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또한 통계연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를 수록하여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 위하여 GIS를 통한 분석자료의 삽입 등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

- 통계연보의 가장 전면에 수록된 “도표로 본 통계” 자리에 전북현안 및 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를(전략산업관련, 저출산고령화 관련, 청년실업 관련 등) 수록함으로써 전라북도의 현실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계연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
- 섹션별로 현안의 구성이 행정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제통계, 부록 형태로 되어 있으나 도정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안통계를 전면에 배치하여 전북통계연보를 찾는 수요자로 하여금 생생한 통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현재 20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계연보의 시작을 현안통계 섹션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통계를 수록하도록 하여 통계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

〈참고문헌〉

- 이강진(2009). 「내부행정자료의 일반통계 활용방안」. 전북발전연구원.
 최봉호(2009). 「수요/공급 측면에서 본 지역통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전북통계연보(2009).
 통계청 내부자료(2010). 「2009 기본통계표준화 서식」

1) 전라북도의 통계연보를 활용한 일반통계화 가능한 행정자료의 목록은 “내부행정자료의 일반통계 활용방안” 2009, 전북발전연구원 54~55P 참조.